

광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175곳 선정

4개부서 8개 사업 12억 지원...이번 달 본격 추진

광주형 협치마을 10개 · 주민자치회 준비마을 1개

광주시는 1일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자치 실현을 위해 4개 부서가 통합 공모로 추진한 2021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175개 마을공동체를 최종 선정하고 12억1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합 공모는 ▲자치행정과와 광주형 협치마을 모델사업, 마을교육공동체, 청소년화해놀이터, 마을분쟁해결 지원센터 소통방, 공유축진사업 ▲민주인권과의 인권마을 ▲사회복지과의 광주마을복지공동체 ▲여성가족

과의 여성가족 진화마을 등 4개 부서 8개 사업에 대해 실시했다.

마을공동체 선정은 각 부서별 자체 심사위원회 심사, 총괄조정위원회의 사업중복성 심사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돼 시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32개, 서구 34개, 남구 37개, 북구 43개, 광산구 29개 공동체가 각각 선정됐다.

분야별로는 광주형 협치마을 모델

사업으로 광주형 협치마을 10개와 주민자치회 준비마을 1개 마을이 각각 선정됐고,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은 40개,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의 학습 기회를 주는 씨앗동아리 사업에 11개 공동체가 선정됐다.

청소년의 갈등, 학교폭력 문제 등을 마을, 학교, 학생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청소년 화해놀이터 사업에 4개, 마을 내 갈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마을소통공간 소통방 운영사업에 50개, 물품, 공간, 재능 등 다양한 영역의 공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유축진사업에 11개 공동체를 각각 선정했다.

또 마을에서부터 주민 스스로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인권마을만들기 사업에 20개, 마을의 복지수요 파악과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마을복지 공동체사업 17개, 여성역량 강화와 활동 촉진을 위한 여성가족진화마을 사업에 11개 마을공동체가 각각 선정됐다.

김지환 자치행정과장은 "선정된 마을공동체가 분야별로 발굴한 코로나 19 대응 비대면사업, 시 역점사업인 기후변화 대응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구, 광주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자치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함께 회계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가거도 해상서 펼쳐진 3·1절 만세

3·1절을 하루 앞 둔 지난 2월 28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 앞 해상에서 목포해양경찰서 대형 경비함정 승조원들이 태극기를 펼쳐들고 만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전남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아특법 개정안 통과' 5년 공석 아시아문화전당장 선임되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국가소속 유지가 법령으로 보장되면서 개관 이후 5년동안 공석 상태인 전당장 선임과 아시아문화원과 통합으로 인한 조직 개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5년 11월 개관이후 현재까지 '직무대리' 체제 문체부, TF 구성해 선임·조직개편 등 본격 추진

자료를 통해 문화전당이 당초대로 국가소속기관으로서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내용의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후속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1일 밝혔다.

아특법 개정안은 지난 2월26일 국

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주요 내용은 문화전당이 당초대로 국가소속기관으로서 공공적 기능을 추진하고 콘텐츠 유통 등 일부 수익적 사업을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진행하는 것이 골자다.

또 개정안은 법인으로 돼 있는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하고 새로 설립되는 문화전당재단이 문화관광상품 개발과 편의시설을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유효기간도 2031년까지 연장됐다.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역의 문화단체 등은 그동안 공석이었던 전당장을 조속히 선임해 조직 개편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난 2015년 11월 개관이후 올해까지 전당장을 단 한번도 선임하지 못하고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관 이후 선임 공모를 진행했지만 지난 2017년 12월 5차례 마지막으로 중단했다.

문체부는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TF를 구성하고 전당장 선임과 더불어 조직개편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전당 관계자는 "아특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중단됐던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으며 문체부가 전당장의 직급과 임기 등이 담긴 규정을 마련해 선임 전당장 선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역 문화단체 관계자는 "문화전당은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거점공간으로 만들어 줬지만 전당장 없이 5년이 지나고 있다"며 "법안 통과로 문화전당의 지위가 국가기관 소속으로 확보된 만큼 조직 개편과 재단 설립 등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전당장 선임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일기 기자

동구, '찾아가는 마을 배움학교' 주민 관심 속 성료

광주 동구가 건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모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한 '찾아가는 동구 마을배움학교'가 주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지난 2월25일 성료됐다고 밝혔다.

마을배움학교는 주민이 염원하는 마을활동을 공모사업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직접 상상하고, 계획하고, 작성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비대면 마을공동체 활동방안 ▲기후위기 대응활동 ▲주민조직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서구, '복합민원 전문상담관제' 효과 특목

광주 서구가 작년보다 민원행정 서비스를 향상하고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운영중인 '복합민원 전문상담관제'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복합민원 전문상담관제는 다양한 행정실무 경험이 있는 퇴직공무원을 채용하여 민원인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복합민원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처리 절차 등을 상담해주는 제도이다.

서구에는 현재 복합민원 전문상담관으로 2명의 퇴직공무원이 활동 중이다. 이들 전문상담관은 건축 인·허가와 등록 등 여러 부처와 연계되는 복합민원에 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충민원 상담·처리 및 민원신청서 구비서류와 기록요령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남구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맞춰주세요"

'2021년은 남구청 개청 2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995년 ()월 ()일 서구에서 분구한 뒤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고, 남구의 관문인 백운광장은 ()년만의 백운고개 철거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광주 남부권의 중심 역세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남구 남구가 개청 26주년을 기념하고, 남구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26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청 개청 26주년 기념 퀴즈 이벤트가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광주 남구이야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보내면 추첨을 통해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상품이 제공된다.

북구, 최대 규모 전문체육시설 '북구종합체육관' 건립

광주 북구는 2일 오후 2시 북구종합체육관 착공식 개최 후 본격적인 건립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유관단체 관계자, 주민대표 등 최소 인원으로 진행된다.

북구종합체육관은 총 160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일원에 연면적 4995㎡(지상 4층)로 신축되며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다.

1층은 체육회사무실, 스포츠카페, 체력인증센터 2층은 배드민턴장 16면, 농구장 3면, 탁구장 3면 등 다목적 체육관으로 조성된다.

광산구, 중소기업인 정부 정책설명회 개최

광주 광산구와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가 지난 2월25일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1년도 정부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설명회는 광산구를 비롯해 산업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등 각 경제부처와 연계할 수 있는 주요 지원사업 목록을 소개하는 자리. 아울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중심으로 중소기업인들을 돕는 사업 정보도 공유하는 장이었다.

참가자들을 위해 광산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올해 정부지원사업을 정리·요약한 <알쓸비책3> 책자를 배포했다.

임형택 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 원청의 안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 정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엔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해·납득에서 제1인술로 걸음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급여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비율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